

세상의 또 다른 창, 가상의 집에 피어오르는 문학의 향기

“밤새도록 산문시 같은 빗소리를 / 한 페이지씩 넘기다가 새벽녘에 /
문득 봄이 떠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네 / 내 생애 언제 한번 / 끝낼들 날
갯짓소리 어지러운 햇빛 아래서 / 함박웃음 가득 베풀고 / 기념사
진 한 장이라도 찍어본 적 있었단가.”

소설가 이외수가 지난 4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에 올린 자작시 중 일부다. 시의 제목은 <봄밤의 회상>. 이에
'stellar' 라는 대화명을 가진 한 독자는 이렇게 답글을 남겼다.

“선생님의 시를 읽고 가슴이 저미는 것을 느낍니다.
제 유년시절의 기억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런 표현을 할
만한 구석이 없거든요.”

작가와 시인. 이들은 전통적으로 '은자'로 받아들여
지는 사람들이다. 숨어서 내다보는 의미에서 이들은 은자
인 동시에 견자이기도 하다. 대중 독자와의 거리를 멀리하
면 할수록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신성성Divinity이라는 아
우라는 작가들이 써내는 작품에 가외의 품격을 부여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
외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작가와 시인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독자와 '접선' 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자들은 게시판에 들어와 작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답
변을 요구한다. 때에 따라서는 격렬한 논쟁도 벌인다. 이처
럼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학환경이 만들어낸 지
형은 문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자기 수식과 해명의 기회를
갖도록 만들었다.

현재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문인들은 대략 30여
명 선으로 보인다. 물론 이북ebook 포털 사이트와 상업적
인 계약을 맺고 개인 홈을 구축해 놓고 있는 문인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문인 홈페이지 중 내실 있는 콘텐츠와 성
실한 운영 등으로 독자들에게 풍성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
는 홈페이지를 찾아가 본다.

먼저 소설가 이인성의 홈페이지(www.leeinseong.pe.kr).
2000년 2월에 처음 오픈한 이 홈페이지의 누적 페이지뷰는
11만 5천 건에 육박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인성의 열렬한 독자 정재혁 씨. 그는 이인성의 소설을 좋
아하는 순수한 팬의 자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성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소스를 가진
열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뜨락에서 만난 작가>라는 제목의 카테고리는 홈의 주
인인 이인성을 소개하는 꼭지다. 작가 스스로 밝힌 약력과
이성복, 황지우, 김정환 등 주변 문인들의 소묘, 작품 및 비
평 목록 등이 이 카테고리를 이룬다. <마루방 책꽂이>를 클
릭하면 작가 이인성이 지금까지 펴낸 책들이 표지와 함께
뜬다. 책표지를 클릭하면 그 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관련
정보들이 소개된다. 작가의 대표작이랄 수 있는 《낮선 시간
속으로》를 클릭했더니 이 책에 대해서 평문을 쓴 김현과 김
동식의 평문이 링크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간단한 리뷰와 함
께 주요 참고비평의 목록까지 제시해 놓았다.

이인성의 홈페이지에서 가장 특색 있는 카테고리는
<안방 초대 문인>이라는 카테고리다. 이곳을 클릭하면 조
은, 황인숙, 함성호, 조경란 등 동료 및 후배문인들의 에세
이와 콩트들을 볼 수 있다. 이인성의 청탁으로 쓰여진 이 글
들은 하나하나가 공들여 쓴 읽을 만한 글들이다. 이 밖에도
작가의 짧은 칼럼들을 모아놓은 <글방의 낮은 숨결>, 일반



소설가 이인성 홈페이지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사랑방> 및 <방명록> 등이 이인성 홈페이지를 꾸미고 있다. 난해한 실험작가로 알려진 이인성이 이처럼 친절한 집을 지어놓고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작가 이외수 홈페이지(www.oisoo.co.kr)는 작가의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듯 연일 방문자 수가 폭주하는 곳이다. 자유게시판 등록 글 수가 7만 건을 넘는다. 이외수 홈페이지는 문학 이외, 작가의 다양한 재능을 접할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작가가 그린 수채화, 컷, 그림엽서, 표지 그림, 붓글씨 등이 <갤러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제공되고 있다. <작가소개>를 클릭하면 작가의 약력이 뜨고 김성동, 하창수 등 동료 작가 및 지인들이 쓴 작가소묘가 나온다. 하나같이 작가 이외수를 이해하는 데 많은 참조가 되는 글들이다. 또한 작가전용 게시판에는 이외수 씨가 독자들에게 띄우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최근에 올린 글에서 이외수 씨는 자신이 '서도 공연'을 성황리에 끝마쳤음을 알리고 성원을 보내준 독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역시 술한 미확인의 기행으로 잘 알려진 이외수의 홈페이지는 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듯하다.

시인 쪽에서는 안도현의 홈페이지(www.ahndohyun.com)가 눈에 띈다. 안 시인의 캐리커처를 초기화면의 바탕에 깔아놓고 있는 안 시인의 홈페이지는 42만이 넘는 페이지뷰를 기록할 정도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또 회원제를 도입해 시인과 독자 간 커뮤니티의 질을 높인 게 특징이다.

여덟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홈페이지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인의 생생한 사유가 담긴 <시인의 편

지>라는 카테고리다. 현재 64편의 편지가 올라와 있는데 매 편마다 조회수가 수천 건에 이른다. 독자들은 시인 자신이 그때그때 올리는 진솔한 생각들을 읽으면서 '시인'의 영혼을 보다 더 가깝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안도현 시인의 홈페이지에서 가장 특색 있는 카테고리는 <시창작 교실>이다. 시인을 꿈꾸는 네티즌들을 위해 안 시인은 좋은 시 다시 읽기, 시창작법 등의 소스를 꾸며놓고 시인 자신이 경험한 생생한 습작기를 들려준다.

박남준 시인의 홈페이지도 추천하고 싶은 홈페이지 중 하나다. 시인이 기거하는 모악산의 산방 정경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았는데 도메인까지도 '모악산방(www.moacsanbang.com)'이다. 박 시인은 '모악일기'라는 이름으로 이 홈페이지에 일기를 올리고 있다. 시인은 산중의 봄소식을 이렇게 전하기도 한다. "꽃들은 어찌 저리 일제히 피어나는가. 과상공격으로 총진격으로 아 잔인한 기총소사로 우리집은 저 꽃들에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했다. 저 점령군의 오만한 향내들이여. 오냐 행복이다. 어디 나를 죽고 죽여보아라. 녀마저 빼앗아 가버리누나." 시인의 사진과 산문 등 다양한 읽을거리와 자료들로 꾸민 열한 개의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주유하다 보면 박 시인의 시적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발원해 어디로 뻗어나가는지 알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네 사람의 문인 이외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작가로는 소설가 신경숙, 박범신, 은희경, 박인홍, 시인 연왕모, 이정록, 이대흠 등이 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있는 문인들이 네티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애정이나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작품 세계를 존중해 주고 소통의 가능성을 구하는 예의다. **문인**

김도연 기자

www.oisoo.co.kr



소설가 이외수 홈페이지

www.ahndohyun.com



시인 안도현 홈페이지

www.moacsanbang.com



시인 박남준 홈페이지